

## 탈북단체 “25~29일 사이 경기·강원 일대서 대북전단 날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예고한 대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설명하며 관련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박 대표는 “‘세습수령’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무권리한 북한인민들 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권리는 있지 않느냐”며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북한동포들이 기다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유엔과 미국, 유럽, 국제사회, 인류가 규탄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33년 전 군사독재시대 보다 더 가혹한 좌파독재로 거침없이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내일(5월 1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효용 (utility@kbs.co.kr)